**그 이름을 믿는 자들**

저는 7년동안 장년부 목자로 섬기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목자직을 내려놓고 대학지구 촌장으로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지구 학생들을 목양하며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귀하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과 이 곳에 있는 학생들도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짧은 글이지만 수련회부터 지금까지 촌장으로써의 경험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젊은이들을 향한 기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분당1캠퍼스 탁군진촌장님, 분당2캠퍼스 김광수촌장님, 분당3캠퍼스 이민정촌장님, .… 수지6캠퍼스 김명렬촌장님” 2월 9일 명지대 강당에서 각 캠퍼스 촌장님이 소개 될 때마다 대학지구 공동체들은 열렬히 환호해 주었습니다. **‘The Kingdom Come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눅17:20~21)’**라는 주제로 고등부에서 갓 올라온 새내기들부터 93또래까지 총 1,100여명이 모인 2019년 대학지구 수련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순서 중 하나로 진행된 촌장 소개 시간도 은혜의 열기만큼 뜨거운 환영과 응원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수련회에 함께한 모두는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마지막 시간에 눈물로 안수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캠퍼스 촌장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자신의 기도제목을 적어오는 학생들을 만나며 참 진솔하고, 다양한 기도제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기도 하고, 깨어진 가정에 대한 아픔을 안고 회복되기를 구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길 바라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도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은혜를 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기도제목은 달랐지만 단 한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답 주시기를 구하며 그 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많은 대학지구 학생들은 2박3일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주신 마음을 이어가고자 훈련의 자리에 스스로 지원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은 GLA를 통해 자신의 삶의 로드맵을 그려보고, Xee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하는 복음 훈련을 받고, 바이블 아카데미, 제자훈련 등을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대학지구 선배들이 그러했듯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이 되어 목장축제, 국내선교, 해외선교 등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페친할래를 통해 평소 전도하기 어려웠던 친구에게 손 내밀어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대학지구 내 사역에 참여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목장모임에 관객과 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일꾼이 되어 목장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2:2~3)

위의 말씀은 제가 촌장을 하면서 본 대학지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돈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목장모임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모두가 하나되어 서로를 세워주며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모습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 가기를 중보합니다. 대학지구 모든 학생들이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동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학지구 모든 지체들 사랑합니다!!!